

오르비 의예에서 07년도까지 검색함
못본 면접 후기도 있으므로 타산지석 할 것
대충 08학번 면접 문제까지는 나와있음 이를 바탕으로 면접 문제를 예상할것
주로 생물 문제를 묻는 듯함 그러나 혹시 모르므로 평소 화학도 공부할 때 열심히..

을지 의예 12학번 면접 후기

1.12학번 오전반

저도 오르비 분들 면접 후기로 도움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후기를 올립니다.

놀라운건 면접장에 갔는데 낯익은 얼굴이 한명 보이길래, 알고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그리고 지금 글보면서 알게된거지만 그친구가 바로 '가는거다' ㅋㅋㅋ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동창 만나니 적잖이 반가웠다는...
끝나고 서로 면접관련 얘기도 나누면서 밥먹고
각설하고 면접얘기 시작합니다.

전 오전반 전체 인원 중 마지막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덕분에 8시 반에 입실하고 12시 넘어서 나왔다는 ㅋㅋㅋㅋ 토나옵니다 정말..

10분마다 4명씩 대기실에서 빠져나와 정해진 문제를 맞닥드리게 됩니다. 30분간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30분동안 정리한 종이는 면접실 안에 들고갈 수 없습니다. 머리 속에 다 넣으셔야해요.

전 적성1번 = 아세틸콜린은 근육에 흥분을 전달시키는 매개체인데, 뱀독(이름이기억안남)은 아세틸콜린수용체와 비가역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이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뱀독에 물린 사람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되는데, 이유는? (깔끔하게 기억안나서 ㅈㅈ)

들어가자마자 적성문제 답하라고 하길래, 조금 두서없이 돌려댔습니다.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수용체단백질과 결합해야 근육이 움직이는데,

뱀독이 비 가역적으로 수용체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아세틸콜린이 결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육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가역적으로 수용체단백질과 결합할경우에도 지장이 생기는데, 비 가역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늑골과 횡격막이 움직여야하는데, 늑골에는 늑간근이 있습니다. (전 이쯤부터 정신이 들면서, 차분히 아이컨택이 되더라고요)

그 늑간근이 수축을 하지 않게 된다면 늑골이 움직일 수 없게됩니다.

또한 복강의 크기 변화로 흉강의 부피변화가 생기는데, 복강을 움직이기 위해서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 근육이 수축할 수 없으므로 흉강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호흡을 할 수 없게되어 죽습니다.

라고.. 조금 두서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운데 여 교수님(추정나이 50대) : (다른교수님을 바라보며) 추가질문 하실 거 있으신가요?

가운데 여 교수님 : 잘 대답하셨구요. 인성 문제는 몇번 하실거죠?

저 : 3번이요

3번내용

트럭운전사가 톨게이트 앞에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 한대를 들이박아서 4명이 숨졌다. 하지만 트럭운전사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기에 트럭운전기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트럭운전기사가 브레이크 고장이었음에도, 핸들을 꺾었다면 비록 트럭은 전복되어 자신의 목숨은 잃었을지라도 4명을 죽게하지 않았을 것이 이유이다.

트럭운전기사를 비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비난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럭운전기사는 그들이 비난하지 않더라도 평생동안 4명의 목숨을 짊어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통스러워 하며 살아갈 것을 고려하는 쪽으로 바뀌 생각하자면, 비난이 아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워낙 급박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급박히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정상적 판단이 흐려지는데, 트럭기사는 아마 '브레이크가 되라 제발' 라고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동안 밟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내 목숨을 희생하면 4명을 살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트럭운전기사가 의도적으로 4명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를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4명의 목숨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그 운전자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망정 비난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때로 비극적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 상황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트럭운전기사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하심

여교수님 : 만약 본인이 그 트럭운전기사고, 충분한 생각을 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요?

저 : (약간 당황,얼굴 붉히며) 어.. 그건 좀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음... (잠시 생각)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저 자신을 속이는 것일수도 있지만, 저라면 4명의 목숨을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자신없어하며)

교수님 : 본인이 희생하더라도 말이죠?

저 : 네.... 제가 희생하더라도;;(조금 자신없어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교수님 : 만약 그 트럭운전기사와 승용차에 탄 4명 중에 한 쪽이 죽어야 된다면, 본인이 a라는 버튼을 누르면 트럭운전기사가 죽고, b라는 버튼을 누르면 승용차에 탄 4명이 죽는다고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 : (당황..) 정말 하기 싫은 선택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4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 왜죠?

저 : 1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 보다, 4명의 목숨을 희생시켰을때 제가 더 많이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서입니다.

교수님 : 만약 그 1명이 학생의 아버지이고, 4명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거예요?

저 : 아....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잠시 생각하다)

솔직히 욕심으로는 아버지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가치관을 생각했을 때, 4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 그럼 ㅇㅇ학생은 공리주의자네

저 : 네?

교수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하는거잖아.

저 : 네...

교수님 : 공리주의자네 자네는

저 :네.. 그렇게는 생각 안해봤지만요..

교수님 : 여기까지 잘 대답하셨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기타질문 —

남 교수님 : 의대는 왜 갈려고? 나이를 보니까 88년생인데.. 어떻게 된건가?

저 : 제가 현역때, 연세대 전기전자를 갔었는데, 그때도 원래 의대를 지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 맞춰가게되었고, 진로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공부해보니, 제 적성과 맞지 않았을 뿐더러 향후 수십년간 연구자로써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은 남보다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가슴뛰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제가 하고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짧지않은 시간을 진로문제와 함께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다시 오게되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늦게 돌아서 오게 되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역때는 재수 하기 싫었고 1년을 늦게가는게 크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5년정도 시간이 늦은 지금은, 늦는다는 생각 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갔다왔나?

아니요...(부끄러운표정)

남 교수님 : 그럼 가군 나군 다군 다 의대를 썼겠네?

나 : 네

남 교수님 : **을지대**는 왜 갈려고?

나 : 병원이 잘 되있는 것을 알아서입니다.

남 교수님 : 어디어디 넣었나

나 : 가군 충북대, 다군 고신대입니다.

남 교수님 : 만약 다 합격한다면 어디 갈건가? (오르비 글 예상문제)

나 : 다군 고신대는 안정으로 넣었고, 가군 충북대와 나군 **을지대** 중에 한곳만 되도 갈 생각이었는데, 충북대가 거의 안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 합격한다고 하면, 충북은 등록금이 싸고, 을지는 병원이 더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 싼것만 아니면 무조건 **을지대**가 좋기 때문에 **을지대**로 가려고 합니다.

남 교수님 : 충북대가 **을지대**보다 쎈가?

나 : 제가 반영비율상으로 충북대가 불안정이어서 그런것입니다. 백분위 지표가 좋지 않고 표준점수가 전 유리한데, 가군에 마땅히 쓸만한 대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충북대를 넣었습니다. 관동대 있긴 한데, 5명인가 밖에 모집을 안해서 나이를 생각해서 무리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넣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리하지만 충북대를 넣어서 점수가 낮은 것입니다.

남 교수님 : 가군에 그렇게 쓸데가 없어? 그럴구만.(공감하는 표정으로)

여 교수님 :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나 : 음.. 어... 합격하고싶습니다(얼굴붉히며) (교수님도 웃어주심)

제가 남들보다 많이 늦게가고 돌아간 만큼 이 길에 대한 간절함이 큰 것 같습니다.

남 교수님 : (격려의 표정으로) 늦은 거 아니에요, 정말 늦은거 아니에요... 걱정하지마세요

여 교수님 : 이제 가보세요.

마지막이어서 그랬는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2남1 교수님으로 구성되어서인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조금도 전투적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느낌은 받지 못했으며, 저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끄덕 공감해주셨습니다.

적성 1 질문 중간부터 정신이 들면서 아이컨택을 했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교수님 3분 번갈아보면서 아이컨택하면서 차분하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환산점수 895.xx) 면접 분위기는 좋았고, 진솔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교수님의 '늦게간 것 아니라'는 말에서 진심어린 위로가 느껴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전날 서울에서 첫차타고 와야해서 날을 새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텐데 막상 면접 볼땐 피로는 못느끼고 후회없이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제발 면접으로 뒤집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2. 12학번 오전 4번방 1번

저는 인성1, 적성1 골랐습니다. 아랫분이 써논거 참조하세요

일단 면접실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요, 뭐할꺼냐고 하시니까 인성1, 적성1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없이 바로 적성1번 말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뱀의 독은 아세틸콜린의 경쟁적 저해제이니 아세틸콜린과 수용체의 반응이 방해받고, 이 반응은 비가역적 반응이므로, 독이 수용체와 결합 하면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흥분이 저해되어서 근육축이 발생하지 않고 마비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호흡운동은 늑골의 늑간근과 횡격막의 움직임을 돕는 근육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앞에서 말한 과정에 의해서 이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 흉강 과 폐의 부피와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운동이 멈추게 되고, 호흡운동이 멈추면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노폐 물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추가질문을 하시더군요

[우리몸에선 왜 이런 마비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추가질문에 당황해서 한 2초정도 어....하다가 입에서 나오는대로 그냥 말했습니다

[우리몸에는 뱀독같은 경쟁적 저해제가 없고요.....음...아세틸콜린은 나중에 분해되거나 수용되기 때문입니다]

[음 아까 비가역적인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힌트로 삼으면?]

제가 1,2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말하려고하니까 그냥 면접관께서

[우리몸에선 가역적인 반응이니까 아세틸콜린이 나중에 회수되어서 어찌구 저찌구....]

[아..네 맞습니다]

방금까지 질문하시던 면접관께서 다른 면접관에게 다른거 질문할거 있으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분이

[아까 늑골과 횡격막에 의한 호흡에 대해 말했는데 자세히 말해보세요]

[늑간근에 의해 늑골이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면 흉강의 부피와 폐의 부피가 커지고, 폐의 압력이 낮아져서 고기압의 대기에서 공기가 들어 오기 때문에 흡기가 발생합니다. 호기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호흡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폐에는 폐포와 모세혈관이 있는데,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하고 모세혈관에서 폐포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게 호흡입니다]

(사실 조직에서의 기체교환과, 미토에 의한 세포호흡도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맥락상 이걸 묻는게 아닌거 같아서 그냥 대답 안했습니다.)

[적성은 잘 말했습니다. 인성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학생부에 기재하는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한번의 실수로 학생부에 문제학생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생님께 차별과 무관심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더 일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범은 여러교육을 통해 교정하고, 재범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기재에 찬성한다는 말인가요?]

[음..네. 한번의 실수로 학생부에 기재하는건 부작용이 심하고, 보통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범은 여러 교육을 통해서 교정하고, 이런 교정을 받고도 상시로 폭행을 하는 학교폭력 재범은 어쩔 수 없이 기재해서 근절시켜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가해자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데, 특별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폭력을 확실히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가해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가해자, 한쪽은 피해자 이런식으로 역할극을 시켜서 왕따와 학교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 하면,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사과편지를 쓰는것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데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거 같나요?]

[제 생각에는 사소한 폭력과 욕설에 무감각하고, 경쟁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약자와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능력의 부재 같은 우리사회의 문제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책들은 이미 학교에선 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제가 신문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이런 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어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찌르시더군요ㅠ)

[아니, 신문에서 말고, 본인 경험에선 어떤거 같아요?]

[아....음...솔찍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우발적인 폭력은 봤어도 집단적으로 왕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건 못봤습니다.]

[그래요? 좋은 학교 다녔네요]

[네... 아, 초등학교때 좀 더럽게하고 다니고 사고성이 없는 애가 있어서 애들이 꺼려하긴 했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적으로 왕따하는 정도까진 아니었습니다.]

[만일 본인이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할건가요?]

[학교의 왕따,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같은곳에 신고할 겁니다]

[보복을 당하면요 어쩌려고요?]

[그건 정부와 학교 측에서 확실하게 신변을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교와 정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인성이었던거 같네요.

[고등학교때 봉사활동은 어떤걸 했나요?]

[~~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한 면접관께서 다른 면접관한테 면접시간이 몇 분이냐고 물으셨더니 그분이 10분이라고 하시고 이제 그만 나가보라고 해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지원대학, 지원동기, 노벨의학상, 어떤 의사가 될건지, 제 장단점 등등 여러 가지 준비해뒀는데 결국 하나도 묻지 않았네요...봉사활동만 딱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짧게 답변했는데 추가질문이 없었네요..인성,적성으로 10분 딱딱 다 채워서 그렇듯싶어요,,,(실제로 1분정도 초과한듯...)

근데 면접관 분들이 계속 추가질문하셔서 멘붕할것 같았음ㅜㅜ적성은 주로 한분이 집중질문하시고 나머지 한분이 조금 추가질문 하셨는데 인성은 세분이 다 질문 엄청 하셔서 많이 당황...했던말 또하기도 하고ㅜ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좀더 말할거 있었는데 생각 안나서 못말했고....표정관리도 안된거 같은데;;

댓글 : 뱀독이 아세틸콜린같이 수용체에 결합해서 근에 지나친자극(Action potential)을 주면 근세포가 수용체의 숫자를 줄입니다 이다음은 머리좋은분이니니까 아실듯해요 합격하실거예요 능력은 있지만 따뜻한 의사 되실거라고 믿어요ㅋㅋ

아세틸콜린수용체관련 내용은 제시문에 있었고요, 나머지는 생1에서 추론 가능해요~

제가 생리학배운본과생인데요 답변이거의교과서수준이네요. 님이수능성적이꼴등이어도뽐힐거같아요ㅋㅋ

다른 후기보고왔는데 만약에 뱀의독이 저해제라는언급이없었다면 다른답변도 가능하네요 근데 이건 고등수준을 너무 넘어섰고 교수님들의 추가질문을봐도 님이정답일듯해요 좋은의사되실거같아서 사족으로알려드리면

3.
저도 오르비 선배들의 후기를 보고 도움이 되었기에 이후에 면접볼 님들을 위해 후기 올립니다.

오전반 이었구요 오전반80명 오후반 61명인가 그랬는데 오전반에 15명 안왔네요 ㅋㅋ
강의실 하나에 모아놓구 면접 대기시키는데 .. 답답해 죽는줄 알았네요 제가 거의 마지막이라 거의 두시간 반 가까이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림;;

면접 문제는

인성

1.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정책이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면 그이유 그리고 좋은 해결방안

2.SNS 규제에 대한 생각 또 뭐 있었나 ::

3.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톨게이트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4명이 사망했다. 핸들을 틀었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다. 이 운전자에대한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성

1.축색돌기 말단에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다. 독사의 독은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한다. 독사에 물린 사람이 왜 마비증세가 오는가? 그리고 결국 호흡곤란으로 죽는이유는?

2.40도 정도 되는 온천에서 최소한의 몸만 내놓고도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열대야의 정의를 땀과 기온을 이용해 정의해 보아라

3.기억이 안나네요 ...

면접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5분간격으로4명씩 부르는데요 면접준비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30분동안 생각을 하고(종이를 주는데 면접실로는 못들고 들어갑니다.) 면접실로 가서 면접을 봅니다.

전 인성 1번과 적성 2번 골랐구요
전 제 1면접실에서 봤어요 가니까 자기소개 하라하시고 성적은 어느정도 나오느냐.. 수능 언어를 얼마나 못봤냐;;(당황)
대충돌려대고 인성 적성 순으로 얘기 했구요 중간중간에 태클은..... 별로 없었구요
빨리빨리 끝내서 시간이 좀남았는데 교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싶은말 없냐 하시길래(이때 을지대 의대 이념이나 의대에 와야하
만 하는 절실하고 개인적인 이유를 대면 좋을 듯) 순간당황해서 막 떠올리다가 제 첫인상 좋냐고 ㅋㅋㅋㅋ 그니까 교수님이 웃
으시면서 좋다고 ㅋㅋ 글고 을지대 꼭 오고싶다고 얘기 했구요
다른 의대 어디 나왔냐고 하시길래 다 말했어요.. 음 딱히 마음에 걸리는건 없네요 ㅋㅋ 평타친듯
참고로 을지대식 내신+수능은 898.0점이었습니다.

댓글:적성2번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해요ㅎ
->(원글 작성자)ㅋㅋ 체온유지 힘들겠다구 ㅋㅋ워 확신을 못해서 ㅊ 대충 돌려댔어요

4. 을지대 정시 표본(11학번까지)

10년도

- 904.10 wwwhoamii (대기 45번)
- 902.09 밥죤쥬 (합)
- 901.99 ㅋ***** (대기 10번)
- 900.79 he*****
- 900.66 i***
- 900.64 Luv_Cloud (대기 11번)
- 900.44 외*** (합)
- 900.39 agonist♡
- 900.10 I♡WHOAMI (합)
- 900.08 포에버알럽
- 899.xx JinJA君 (합)
- 899.13 르샤마지끄
- 899.xx ra***** (대기 20중후반)
- 898.74 토토로다 (합)
- 898.71 ** (합)

898.49 아*

898.49 인생 (합)

898.22 ch***** (대기 21번)

898.x 10학번치대생 (합)

898.09 의치한고고싱

898.09 의대갈수밖에없지 (합)

-----진학사 최초컷-----898.09

897.98 영** (합)

897.xx 에버그린s (합)

897.04 2013 (대기 33번)

896.79 Dr.wannabe+ (대기 3번)

896.69 노**** (합)

896.48 d*****

896.48 굽*

-----진학사 최종컷-----896.32

895.xx esoo90 (합)

895.xx 으 | ㄷ ㅞ (합)

895.xx 불** (대기 14번)

895.89 lllllllll (대기 28번)

895.21 오찍은거다맞았다 (대기 29번)

895.11 어이 (대기 30/31번)

894.59 남자메딕 (대기 4번)

894.1 인**

890.57 슬림팬더(대기 12번)

11년도

903.24

902.44

902.39 → 합 ☎

902.04 → 합 ☎

902.00 → 합

901.00 → 대기21

900.53

900.18

900.18 → 대기09

900.09 → 합

900.08 → 합

900.06 → 합 ??

900.XX→ 합 ◆

899.98

899.92

899.91 → 합

899.90 → 합 ☆

899.64 → 합 ☆

899.61 → 합 ☆

899.58 → 합

899.50 → 합 ☆

899.44

899.14

899.XX → 대기07 ☆

898.99

898.99

898.88 → 합 ☆

898.80 → 대기32

898.64 → 대기23 ??

898.57

898.34

898.23 → 대기18

898.23

898.11 → 합 ☆

897.98

897.80 → 대기X

897.58 → 합 ☆

897.48

897.44

897.00

896.83

896.80 → 대기31

896.18 → 대기34

895.73 → 합 ??

895.53 → 대기15 ☆

895.38

895.42 → 대기08 ☆

895.00 → 대기10

894.28

894.00 → 대기20 ☆

893.23 → 대기25 ☆

892.08

892.06

891.13

890.54

889.23 → 합 ☆

887.20

◆ : 미등록

☆ : 등 록 (추가합격자의 경우, 1순위등록)

☎ : 보 류 (다른 군 합격시 이동)

?? : 미결정

=====

10년도 표본의 경우에는 I♥WHOAMI 님이 모아주셨고

11년도 표본의 경우에는 로랑이 님이 모아주신 표본입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올해는 을지대식합격점수권이 작년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더 높은점수대가 많은듯하네요 ...)

추합이 안도는건 왜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글들에 댓글을 써놨지만 .. 홀리영향이 큰듯합니다)

추합바뀌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많이굴러갈것 같은데 많이안빠지네요 π 불쌍한 삼수생좀 살려주세요 π

전찬으로 폭풍추합 기원합니다!

댓글 :
[Autic0](#)
면접이 1000점 만점중 100점을 차지하는데 ... (간혹 수능과 내신험친점수가 900점넘어가는 경우는 과학 2과목에 가산점이 붙어서그렇죠 ,,)
900점만점의경우 을지대지원자들간의 (정확히는 합격가능권의 점수를 받으신분)이라면 10점내외의 차이가나죠 ..900점대에 서 890점대 초반정도까지요 ...
100점만점을 받는 면접에서 10점정도더 점수를 받았으면 뒤집었을걸로 추정되네요 ,,,
아무래도 세세하게 대답하고 안하고 차이가있는듯합니다 ...또 말할때 태도나 여러가지 외적인 요인도 고려가 안됐다고는 볼수 없겠조 ..
그래서 여러가지 항목에서 조금씩 감점을 당하거나 점수를 더 받게 된다면(한 항목당 1~2점 많게는 3점까지두요 ,,) 면접으로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봐야겠네요 ..

물론 문제자체야 여기저기서 봐왔을법한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그 깊이가 다릅니다,
또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학에 대한 관심도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것 같더라구요(제 경우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물어보는걸로 보아)**

또 면접관이 어떤 교수님이셨냐는 것도 알게 모르게 점수에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을지대 의예 11학번 면접 후기

1.
오전반이였습니다

인성은 2번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는 선택과목해야하나 필수과목해야하나 그거 했습니다

면접실 들어가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성 해보라고 하시네요

고교에서도 국사는 필수과목해야한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의 바탕이며 뿌리이다

우리는 우리역사를 통해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탐색할 수 있고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며 반성하여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다

또 세계화시대에 맞춰서 다른나라와의 접촉이 잦아지고있는데,

물론 다른나라에 대해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자신을 아는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역사또한 우리자신의 일부이기때문에,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

추가해서, 일본 중국등의 국가에의한 영토분쟁, 역사왜곡 등에 보다 잘대처하려면

전 국민들이 모두 우리역사에 대해 깨어있을 필요가있다

특히 과학탐구를 선택한 자연계학생의경우, 우리역사에 대해 모르는경우가 너무 많기때문에

중학교때만의 역사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사는 필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부분의 연결이 좀 이상한데 꺾꺾 어쨌든 교수님이 아무말 안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적성은 3번 야구선수 나오고 뇌사,식물인간문제 했어요

뇌사는 대뇌랑 뇌간 마비, 혼자생존불가, 인공호흡기등의 도움으로 기계적생명연장가능

식물인간은 대뇌만 마비, 혼자 생존가능,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대뇌관련활동 불가.

대뇌 뇌간(간뇌 중뇌 연수)기능 2가지 정도씩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서 장기기증은 언제해야하나?"

라고 물으셔서

"뇌사의 경우 해야합니다. 식물인간은 대뇌가 마비된상태이지만

뇌간이 멀쩡하므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하기때문이고,뇌사의

경우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것과 다름없으므로... "

그러자 교수님이

"그러니까 식물인간의 경우~~~~~란 말이지?" (이부분은 기억이 잘안나네요 ㅠㅠ)

"아...네"

"그럼 뇌사판정은 어떻게하나?"

"음... 동공이 풀려있는지 봐서 풀려있으면 중뇌가 다친거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면 연수가...."

"아니아니. 그건 정의고. 뇌사판정이 라는건 한사람이 사망했다고 판정하는 아주 중요한건데,

의사가 혼자 자기 맘대로 '음 이환자는 뇌사야' 해도 되겠어?

"아, 의사 여러명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거쳐서(이때 교수님세분이 동시에 고개를끄덕이심. 휴 다행...) 뇌사를 판정합니다"

3초간 정적

왼쪽에 계신 교수님이

"아까 한국사쪽에대해서 학생이 잘 얘기했는데, 한국사에서 특별히 존경하는 분이 있나?"

이때 급당황했습니다

간신히 떠올린게 세종대왕님;;;;

"네! 세종대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글이 아닌 우리에게 잘맞는 우리글을 쓸수있게 해주셨고.....해주셨고....음... 해주셨습니다!"하고 뽀뽀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들 표정이 안좋으시네요 ㅠㅠ

이때 오른쪽 교수님이

"최근에 근현대사에 관련된 책을 읽은게 있으면 말해보겠나?"

5초간 정적

"저...생각이 안납니다만 ㅠㅠ"

다시 5초간정적

"죄송합니다 없는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적으시는 오른쪽 교수님.. 불안하네요

다시 중간의 교수님께서

"최근에 2~3년 내로 노벨생리의학상 받은사람 알고있나?"

"네! 올해(잠시 올해가 2011년이란걸 깜박했습니다 ㅠㅠ) 로버트 G 에드워즈가

(중간교수님 고개끄덕이시고 뭔가 적으심)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법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제 중간의교수님이 시계를 보시더니 "음,...1분 남았군. 그만나가봐요 ^^"

하시길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을지대 지원동기, 의사가 되고싶은이유 이런거 물을거같아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물으시더라구요;;

결과가 어떻게될지는 나와봐야 알겠네요

p.s. 최초합 했습니다 ㅎㅎ(2011.01.28 5시)

2.

저같은경우는 인성은 좋은인성이란 무엇인가 이거 택했네요

적성은 AB형혈액형선택했구요

면접 1번방들어가니 왼쪽에 약간 걸걸하신교수님 중간에 여자교수님 맨오른쪽에
조용하신 교수님 3분이서 앉아계시더군요

맨왼쪽에 계신분이 나온고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시고는
인성문제는 1~2분 적성문제는 3~4분에 걸쳐서 얘기해 보라고하셨죠

(제가실제로 대답할때의느낌을 살리시려면 2~3어절마다 "음 ,,, 그래요...
그게요..." 등등 넣어서 읽으시면될듯 ㅠ)

좋은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얘기의 시작을 요즘 서울경기관 교육감이
중고등학생이 선생님들에게 예의를 갖추지않고막대한다 이런학생들도 문제지만
결과속이다른앞에서는 선생님께 예의바르게하고 뒤에서 선생님욕하는
(지행합일)이 안되있는 학생도 문제입니다 제가생각하는 좋은인성은 지행합일이
되있는 사람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 타인에대한 배려도 좋은인성이갖춰야할 요건중
하나라고생각합니다 이때 타인에대한배려란 자기자신의입장이아닌 타인의입장에서
느낄수있는 배려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요
글로벌시대의 좋은인성이란(여기서진짜 버퍼링 대박이었어요 ㅠㅠ무슨말한지도모르겠네요)
앞으로 교통수단의발달에의해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아질텐데
이때 갖춰야할 인성음 문화상대주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생각합니다
타국인의 언어,생활양식등을 이해하고 우리문화에대한자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면접을 길게말하다보니 교수님이짜르시더라구요 ...)

AB형혈액형같은경우에는

을지군이 부계,모계로부터 생길때 만난 난자와 정자가 (이걸또 아기가생길때라고 표현했어요 ㅠㅠ)

감수분열 중기때 방추사형성에 문제가생겨비분리가일어났다

을지군 어머니가 감수제1분열 비분리였고

아버지가 감수분열 비분리이긴한데 언제비분리된지는모르는거고 비분리가안났다면

태아가 발생되지 않았을것이다 이랬구요 (원래연습할때는 사람염색체는 23쌍인데이중에22쌍이상염색체고

1쌍이 성염색체인데 감수분열시 비분리가일어날수있다, ABO식혈액형은 단일인자유전인데 우열관계가A=B>O식인 복대립유전이다 등등 많이준비했는데 말한게 고작저거네요 ㅠ)
이렇게 말하고는

맨오른쪽교수님부터 추가질문하시더라구요

맨오른쪽교수님은 제 혈액형물어보시고는
수혈받을수있는 혈액형 물어보시길래
소량수혈일경우는 항원이항체보다 양기 많기때문에
B,O형이가능하다고말씀드렸고
대량수혈일경우에는 B형만 가능할것같다고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갑자기생각나길래 Rh혈액형은 제가 +인데 -라면 -끼리만 주고받을수있다이것도말씀드렸구요
또다시 추가질문으로 (이건원래 처음에 답했어야하는건데 까먹었어요 ㅠ)
혈액응집은 어떤 원리로 일어나냐고 물으시길래 적혈구표면의 단백질껍질에는(단백질껍질이란표현이틀린듯 ㅠ)응집원이있고
혈장에는 항체가있는데 예를들자면 A응집원과 알파응집소가 만나서 응집반응이일어난다 이런반응은 항원항체가 만나서하는반
응의
일종이다라고말씀드렸어요

그다음 중간에 앉아계신교수님은 의사로서 가장중요하게 여겨야할것은 무엇인가라고물어보셔서
생명에대한 존중이라고했네요
생명에대한 존중을 어떻게 보여줘야하냐고물으시길래
말투와 행동등을통해서
환자분들을 대할때 친절한태도와 의사의 진료에대한 신뢰감을 보여줄수있어야한다고했어요

마지막 맨왼쪽에 계신교수님은 왜 의대에 지원했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공대를 다니다 수능을 다시봤다(이 얘기 하니까 제가 삼수라 나이가 많다
뭐이런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공대선배님들과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니 학교에서 배우는것과 나중에 취직했을때하는일이 전혀
다른것이라고들 하시더라 뭐이런식으로
그리고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가 병원다녀오셔서 하시는말씀을들을때
생물시간에 배운게 적용되는걸 보고는 흥미를 느끼게됐다이렇게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대답하니중간에 계신교수님께서 음.. 결과속이 일치해야한다고 하던데
학생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물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자신을 속인적은 없는것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구요 ㅠ 웃으시고는 맨왼쪽교수님이
겉에비해서 아직은 속이 모자란것같다 그러시고는
뭐 잡담좀 하고는

좋은결과있길바래요 하시고는 면접을 끝냈습니다

준비한것만큼은 실제로 대답을 못한것같아서 아쉽지만 후련하네요 ㅎㅎ

글로써놓으니 비교적 깔끔한 느낌이들지만 ㅠㅠ 면접장에서는 저렇게 말을못해서 아쉽기도하구요

어쨌든 서울로 올라오면서 기차창밖에 저무는해를보면서 제인생에서도 입시는이제 저렇게 저물었으면좋겠다
면서 왔습니다
ps:저처럼 버퍼링기법쓰시면서 면접보신분? ㅠㅠ
댓글 :
저도 버퍼링기법 썼어요

한 5~6어절 마다 '이제' 이단어 넣음

근데 전 안떨었는데도 막상면접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구요

근데 작성자님 '겉에비해서 아직은 속이 모자란것같다' 교수님 이 발언은 뭔가요; 너무 무서우신거아닌가;;

->(원글작성자 답변) 아 정말 생각했던것만큼 답변못해서아쉽네요 ㅠㅠ

ㅠㅠ 그발언하시구 웃으셨음 전그냥 교수님만 멍뚱뚱 나중예 잡담할때 인물이 좋아서 나중예 의사되면 환자한테 인기 많겠다 이런얘기 들었는데 ... 아무래도 막꾸미고가서 그런가봐요

3.

다들 잘 보셨는지요 ㅎㅎ

아랫분이 후기 쓰셨는데, 저랑 같은거군요

적성문제

1. 백신과 혈청의 차이점 구분과 각각에 대한 내용
2. 어패류와 해초류에 많은 영양소에 관한 질문(호르몬 관련 기능, 부족시 신체내 변화 등등)
3. 야구선수 임수혁선수 이야기와 함께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및 장기기증 여부, 그리고 뇌의 구조

인성문제

1. 우리나라가 20년후에 선진화국가로 진입할시 발생할 문제들과 해결방안(일본과 비교했습니다)
2. 한국사(국사)과목의 선택과목/필수과목 무엇이 나은 방안인가
3. 청소년들에게 게임이 미치는 영향(장 단점 과 단점의 해결방안)(스마트폰 언급, 어디서든 게임이 가능해졌다는 언급)

↑아랫글에서 퍼왔습니다!

전 둘다 1번을 선택했는데,

선택하자마자 교수님들 하는말

"아 애들 고르는거 다 똑같네...." 이러시는 ㄸㄸㅋㅋ

적성문제는 3~4분정도, 인성문제는 1~2분정도 이야기하라고하길래 했습니다,

인성문제는 대충; 일본의 버블 경제가 거품빠지고 침체기온것처럼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꺼라고...

음.. 그리고 이유를 고령화랑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적성문제는 항원/항체랑 관련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있는지라 ㅋㅋㅋ 관록이랄까? 떨리지는 않았구요,

계속 웃고있었어요...

그다음에 교수님들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던데

인성/적성에 대한 내용 질문+사적인질문?(음 나이가 있는데그동안 머했느냐 이런거..)

했는데 ㅋㅋㅋ

그냥 중간중간에 농담하고 막 그랬거든요(사적인질문할때)

그래서 교수님들2~3번정도 뺏터지고 그랬는데 ㅋㅋㅋ

이러면 좋은거겠죠...?

워 저는 기분좋게 나와서; 후회는없습니다 ㅋㅋ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4. 어떤 멍청한 놈의 후기

환산점수 900점넘어가서 그래도 면접 평타로 치면 볼것지 싶었는데 다행히 오늘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그래서 문제 설명까지 다 드렸는데

갑자기 을지대말고 어디껏냐고 하시더라고요..흐흐 요기서부터 시작이었음..

제가 충북-을지-인제 썰다고 말씀드리니깐 인제대붙으면 갈꺼냐고 물으시더군요..ㅋㅋㅋ저가 당황해하니깐 '아 그냥 솔직히 말 해봐요. 막 우리학교 오겠다고하지말고' 이런식으로 슬슬 미끼투척하십니다..

그순간 전 바로 망설임없이 네!! 인제대 갈것같아요.. 이렇게 미끼 물어버렸어요... 설마 이것때문에 이새키는 어차피 붙여줘봤 자 오지도 않을꺼야 하고 떨어트리지는 않겠죠??ㅠㅠ

을지대 쓰신분들 모두 건승을빕니다!

5. 2011년에 면접 본 사람들의 기타 잡소리

제 친구 중에 을지대있는데 면접공부할때 같이 내내 피씨방같이 다니고 면접 대기때 내내 자고 면접보면서 헛소리했다는데 마지막에 을지대 꼭 붙고싶습니다 했더니 최초합됐다네요 — 꼭 붙고싶다는 간절함이 필요한듯 ㅋ 물론 수능 성적은 매우 좋았음

3,899면 자라면 가능해보이는데.. 생물질문할때 통합적으로 물어보지만 심화적인거는 안물어보니 그래도 가시기전에하이탑 생 2함 보시고 가세요 ㅋㅋ

적성은 과학문제 나오구요. 생1, 생2 화1 정도 수준으로 나왔던거 같고
인성은 시사문제 나와요.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같은거.. 합산이 897.89면... 면접 잘 보셔야 붙을 수 있을거 같네요
수시 면접 보고온 학생인데요... 문제 3개주고 3개중에 하나 골라서 하는건데요... 제가 화1이랑 생2 집중적으로 공부해갔는데 생1이랑 화2에서 나와서 면접 망했으요 ... 아마 생1 (생2) (화1) 화2 위주로 하시는게 조으실거 같은데...

예전이긴 하지만 제가 입학할때는 오전(물리) / 오후(생물2) 였습니다.
학생들이 무당도 아니고 면접이 어디서 나올지 알리는 만무하죠

올해 이슈가 됐던 것부터 짚어나가시는게 좋을듯

아 오전반 시간 너무 빠르네요.∴.ㅠㅠ

새벽에 일어날 생각하니 정말;;

지금부터 긴장하심 안돼요. 맘편히가지세요.

제 경험상 면접관 앞에 앉으면 무조건 떨리기 땀에

미리미리 마인드컨트를 잘해야해요 ..ㅠ

10학번 면접

1.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점을 세포의 주기를 들어 설명하기

2. 등푸른 생선등에 들어있는 오메가 쓰리의 화학적 작용

오메가3는 오메가6보다 유동성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잘 답변하셨으면 될 듯...

3. 동맥경화증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인성면접

1. 어느 일본인이 우리 전통 음식 비빔밥에 대해 '양두구육의 음식'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

2. 세종시 문제에 대해 찬반을 표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3. 자신이 교육부 장관이라면 수능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말하시오

4. 드라마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5. 교원평가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생물면접 09기출 추가

적아세포증 / 일산화탄소 중독기전

저도 작년에 후기 올려주신 선배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후기 올려요

오후반이었어요

아침일찍 서울에서 출발하여 대전청사터미널서 내린 후 그 근처에서 점심을 먹구

버스에서 내려서 높다 높은 언덕을 올라가니 을지대학교가 있었어요

1:00까지 오라고 했기때문에 12:30분쯤 4층에 있는 면접대기실에 가보니 포스 넘치시는분들이 쭈룩 앉아계셨어요

면접 대기실이 매우 커서 한 150명은 들어갈 정도였어요

1시가 되자 면접도우미선생님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주의사항 알려주시고

핸드폰을 수거하시고 수험표 꽃을 수 있는 핀(?)을 주셨어요.

이때 면접 대기실 안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제가 열체질이라 그런지 더워 죽는줄 알았어요

패딩도 가방안에 넣어버리고 나홀로 부채질 하고 있었어요

1:30분부터 10분마다 5명씩 부를테니 대기하라고 도우미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50분이나 되서야 5명씩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다리는동안 생1출기도 머하고 면접관련프린트 읽기도 머해서 뻘쭙하게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보니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호명하셨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갔어요

3층에 있는 면접 준비실에서 30분동안 문제를 보고 브레인스토밍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인성3문제 적성3문제중 인성1번 적성2번을 골라 끄적거렸어요

인성

1.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알리는거에 대한 네 생각
2. 코펜하겐 기후평가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이 목표가 너무 낮다고 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어찌고저찌고 라고 한다 니 생각
3. 교원평가제가 실행된다. 니 생각

적성

1. 무슨 바이오테크닉따위 설명하면서 결국 단일클론항체
2. 텔로미어가 머고 그 기능
3. 청바지를 부드럽게하는 효소에 관련된 문제 ㅎ 청바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소는 어떤 구조에 어떤기능을 해야하는가

5분동안 문제 고르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15분동안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간단하게 핵심만 끄적거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그 핵심을 달달 외웠어요

종이를 휴지통에 버리고 2번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교수님 3분이 계셨는데 많은 학생을 보셔서 피곤하신지 따뜻한 눈길을 안주셨어요 ㅠㅠ

그래도 목청높여 안녕하세요 xx고에서 온 xxx입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곤 아까 10분동안 달달 외운 핵심에 살을 붙여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쿵쿵쿵 뛰더니 머리가 옥시크린으로 닦은것처럼 하얘졌어요

원래 제가 긴장을 잘 안하는데 긴장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결국 즉석으로 말을 지어내서 인성1번과 적성 2번을 풀었어요

인성1번은.... 강력범죄를 지은 사람은 용의자일때말고 형이 확정됐을때 철저하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나중에 출소하더라도 주변에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스스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계신 교수님께서 한번의 실수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서 평생 눈초리를 받으며 살텐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100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이상 범죄자 한명보단 그 주변에 사는 1000명의 시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범죄자같은 경우 재발율이 높아서 꼭 철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른쪽 교수님께서 정말 재발율 높은거 맞냐고 그러셔서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이랬어요 ㅋ

그리고 적성 2번은 텔로미어였어요. 생2한사람은 다 아는거기때문에 그냥 아는거 말했어요

DNA끝에 달린 여분의 염기다.. 수명시계 같은거다.. 등등

가볍게 넘어갔어요

적성이 끝나자 의대에 지원한 동기를 물어보셨어요

거짓말 안꾸미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떤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국경없는의사회에 가입해서 봉사하는것도 좋지만 나중에 송도같은곳에 국제적인 병원이 생기면

외국계 의사와 일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ㅋㅋ
여기서 국경없는의사회 말 꺼내자마자 교수님들이 깔깔깔 하고 웃으셨어요

아마 제 전에 면접보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신듯 (?)

갑자기 어느 과에 나중에 지원하겠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거기까진 깊게 생각 안해봤지만 신경외과를 생각해 봤다고 임기응변으로 대답했어요 ㅋㅋ

음.. 그러시더니 알겠다고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별로 질문도 안하시고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러셔서

아 면접이 상상송송했구나...(?) 하고 체념하며 높은 언덕길을 설래설래 내려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제가 이상하게 대답했네요 ㅋㅋ

참고로 이 사람은 불합

댓글:

저는 면접가기전에 의대 지원한 동기, 가고싶은 과 이런거 정리해서 생각해놓고 있었는데.. 대기실에서도 이 내용 가다듬고 정리하고 그랬는데 ㅠ ㅠ ㅠ

제가 들어간 방 교수님들께서는 그런건 안 물어보시더라구요 ㅠ ㅠ ㅠ ㅠ ㅠ ㅠ ㅠ

2번 면접실에서는 딱 그걸 물어보셨네요 ㅠ ㅠ

참 저는 마지막에 DNA랑 염색체의 차이를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좀 당황해서 머뭇거렸어요 ㅠ ㅠ

그리고 좀 의아한게 , 제가 텔로미어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났더니 나중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거냐고, 어디서 배우는거냐고, 학원에서 알려주느냐고 물으시던데요? ㄷㄷ 제가 재수라 고등학교때 배웠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냥 재수학원 다니면서 배웠다고했는데 ㅠ ㅠ ㅠ

암튼 후회가 많이 남는 면접이었어용 ㅠ ㅠ ㅠ

작년보다 훨씬 면접 비중이 큰 거 같네요...

내년 입시생들을 위해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면접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어느 학교든..

96(98%) 96(99%) 91(94%) 48(71,100%) 44 45 50(77,100%)(물/화/생/물2)

총점 4700이었고 탐구를 물리1 ,물리2 찢어서 인제대 418점, 동아대 629 을지대 900.1 고신대 1008.xx 결과보니 연원의도 우선선발 점수던데..

아무튼 저는 부산살구 인제대 가고 싶어서 가군에 동아대, 연원의 다 포기하고 인제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과 나왔을 때 저는 오르비를 먼저 접했구요 419,418,417,416까지인가 최초합 하신 분들 쏘아졌구 415에 대기 1번 받으신분

마구 쏘아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뒀구나 생각하구 인제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 결과 예비 22번..

점수가 될만 하니 될거다 이런 생각으로 면접을 안일하게 여겨서 떨어졌었겠지요.

더구나 인제대는 면접이랄게 그닥 특별한 거도 없습니다..

원서결과

가군 나군 다군

인제 을지 고신 (인제 22번)

을지대 지원하시게 될 분들은 면접을 쉽게 보시지 마시구요

면접있는 학교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동아대 인제대/을지대 인제대 혹은 연원의 인제대/을지대 인제대

제가 부산 살아서 차라리 이렇게 원서질 했으면 나왔을 거 같네요..

진학사 너무 믿지마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인제대 나, 다군에 421 420이 최종컷이라 못 쏘는데 실제로 보니 제 점수로도 될 만했더군요..

사실 제가 인제대 불합 때문이기도 했지만 을지대 면접 때는 준비도 좀 하구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이미 재학중이신 akai님 그리고 wwwhoamii님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저는 오후반이었구

적성 단일클론항체와 몸속에서 형성되는 항체의 차이, 단일클론항체의 장점? 인성 강력범죄에 따른 피의자 인권

이 두개를 선택했었네요

단일클론항체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한 교수님이 다클론항체 어찌구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클론항체란 용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묻구 어쨌든 대답을 하는데 또 단일클론항체가 어디 쓰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임신진단테스트, 암의 치료 같은 거 였는데 당황해서 암 치료와 같은 치료용으로 쓰인다고 밖에 말 못했더니

또 어디에 쓰일 수 있겠냐구 물어보셔서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했었구요

인성은 천부인권이야기 하면서 그런 범죄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주거지, 실명, 얼굴 따위를 공개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며 검찰 쪽에서 강력하게 형벌을 줘야 한다고했었어요

그 외 질문으로는 과탐 과목을 뭐했냐고 물으셨었고 의대 지원동기를 물어보셨나 그랬던 거 같네요
인성/적성 30분 빈 용지 하나 주면서 공부하라고 하시는데 면접 볼 때 그 종이를 버리고 들어가더군요 그건 참에 몰랐네요
내년에 이 글 보시게 되실 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네요

짧은 후기였습니다.
도움 주신 akai님 wwwhoamii님
그리고 표본제공 해주시고 점공해주신 모든 오르비 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작년 후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기억나는대로 적었어요

- 인성
1.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알리는거에 대한 네 생각
 2. 코펜하겐 기후평가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이 목표가 너무 낮다고 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어찌고저찌고 라고 한다 니 생각
 3. 교원평가제가 실행된다. 니 생각
- 적성
1. 무슨 바이오테크닉따위 설명하면서 결국 단일클론항체
 2. 텔로미어가 머고 그 기능
 3. 기억이안남!!

ㅋㅋ
전 오후타임이었음
면접 대기실 너무 더워서 계속 부채질 하고 ㅋㅋ

진짜 하나도 안떨렸는데
교수님 세분께서 앤도 뭐야 라는 표정으로 심드렁하게 앉아 계신걸 보니
막 쿵광쿵광 떨렸음 ㅋㅋ
2번면접실이었는데 맨 오른쪽에 계신분 시크하게 끝까지 안웃으심

만약에 붙으면 자세한 후기 올려드릴게용~

저는 오전 5번방이었구요...좀 일찍 들어갔네요;

문제는 다 똑같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교과부 장관되면 뭐할지 그거 골랐구요

수능 한번봐야되고 문과에 미적 넣고 문이과 국사넣자..이런 뽀소리했구요;

근데 추가질문은 안하셨네요...!..;

전공에서..뭣도 모르고 암세포 골르고

텔로미어 얘기 하면서 무한증식 막 이런소리 했는데

교수님이 세포 자라는 과정 얘기해야 한다고 하셔서 대답 못했네요;;

알고보니 생투내용이고..저는 물화반이었따는..

그거 끝나고 을지대 왜 지원했는지 물어보셔서

의료 특성화대학 어쩌고 저쩌고 얘기 하구요 제가 기초쪽에서 노화 텔로미어 뭐 이런거 관심 있어서 그얘기 하니까

그거 뭔지 물어보대요;;대답 하니까 그걸로 올해 노벨 생리 의학상 받은 사람 이름 대라그래서

이름은 기억 안나고 어느 대학인지만 기억나서 그 얘기만 해드렸네요...

댓글 : 저는 오전4번방ㅋㅋ 저도공부해간세종시랑적성아는게별로없는관계로암세포해서세포주기대충말하면서결국은텔로미어 얘기를했습니다ㅠ화2했지만생2를관련있어보이는부분은공부해갔습니다..ㅋㅋ텔로미어가뭐고텔로머라제가뭐냐고추가질문하셨는데... 그게오후반문제였더군요;;영어약자많이물어보시고..ㅋㅋ그리고...저할때1번방들어가시는분도오르비를하시는거같더군요ㅋㅋ 플레밍님후기를본듯한느낌으로면접각각2분씩대답하는거냐고물으시던데...ㅋㅋ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구조로 설명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LDL HDL 을 물어보시고 —— 대답못했음 ㅈㅈ 뭐의 약자인지 아시냐고 물어보셔서 그것만 대답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제가 배운 과목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했네요 ㅠㅠ ㅠㅠ 허—ㄱ흑 ㅠㅠ ㅠㅠ ㅠㅠ ㅠㅠ ㅠㅠ ㅠㅠ ㅠㅠ ㅠㅠ ㅠㅠ ㅠㅠ

아 그리고 지원동기는 을지대 의료특성화대학 어쩌구 저쩌구...빨소리 했구요...
추가질문 거의 없었다는게 맘에 걸리네요 ㅠ

저는 인성3번 세종시로 했는데
면접관이 이 문제 생각해 봤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요'그러니까..
'나름 순발력있고 조리있게 말 잘하네요'라고 하셨음

09학번

을지대 면접 갔다운지 좀 됐는데 ㅋㅋㅋ
괜히 글쓰고시퍼서 ㅋㅋ

을지대 캠퍼스 정말,,인근 고등학교보다도 작고
캠퍼스에대한 로망을 확 깨긴하지만... ㅋㅋ
병원이나 재단같은거 보면 그래도 괜찮은 학교예요 ㅋㅋㅋ

전 오전조였는데
거의 마지막이라서 기다리느라 지치는 줄 알았어요
청심환머거서 계속 하품하고 ㅠㅠ ㅋㅋ

그전날 을지대다니는 선배랑 2시까지 노느라
면접 준비하려고 시사 자료 뽑아논거 하나도 못읽고
면접 순서 기다리면서
대전은 신종플루 좀 심각하니깐 이거라도 나오면 잘해야지 하고
그것만 외웠는데 ㅋㅋ
추가질문에서 신종플루에대해 아는대로 말해보라고하셨어요 . ㅋ . ㅋ

면접은 인성 3문제 적성 3문제 자신있는거 하나씩 골라서 30분동안 준비하는데
난 인성 그 할머니 찾아가는거 했음 ㅋㅋ
적성은 물리 화학 생물 대충 이렇게 나온것같던데

다른건 보지도않고 생물 풀었는데
각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효소들 기능 설명하고 왜 특정기관에서만 나오냐 말하는 것이었어요
생1에 있는거 외우고 있음 아주 쉽게 풀수 있는것임.
그리고,,,,,,,,,,,,,
내가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서 ~한 상황일때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한다고 하니깐 자꾸 생각을 바꾸게 만드려고 하시는것같았는데
끝까지 ~한다고 해서 만족해하시는듯한(?) 표정 지으셨어요 ㅋㅋ

ㅇㅏ .. 을지대 꼭 합격하고싶네요
을지대 보신분들 수능까지 화이팅 `~
댓글 ;

[돌아예몽](#) 09.10.20. 01:18

효소문제 (2)번 답이 뭔가요?? 전 ph때문이라고 말했는데 학교와서 다른 애들 말하는거 들으니까 오페론 얘기 하던데...

[답글](#) | [신고](#)

ㄴ [SNUAN](#) 09.10.20. 18:55

혈...진짜요? 저도 ph했어요 .근데, 오페론은 원핵생물에서만 나타나는거아닌가요??.....

[신고](#)

ㄴ [돌아예몽](#) 09.10.21. 00:34

다행이네요ㅋㅋ

[신고](#)

[아이린k](#) 09.10.23. 22:11

전 을지대 면접이 처음보는 면접이라 망함 πππ 신종플루는 바이러스 종류 [H1N1이다 뭐다 이런거] 실컷 얘기하다 막혀가지고 모르겠다 그
러구.. 노벨 생리의학상만 제대로 대답하고.. 효소문제도 2번은 안물어보시던데...ㄷㄷ;;;

생물1 정도 복습하는 수준만 준비하시면..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신겁니다.

인성 면접에 대한 대비도 완전 최신 시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특별히 올해 이슈를 막 파실 필요도 없구요.

5분이내에 말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깊게 팔 필요가 없지 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저희학교는 종합대학이 아니라 수학과 교수님이 없으므로 당연히 수리/과탐에 대한 심화문제는..나올꺼라 생각하기 힘
들구요;

약간의 생물1 범위에서의 의학적 지식, 그리고 상식 정도면 될 듯합니다.

면접 영향력은 최종컷라인 부근에서 조금 바뀌는 수준이지 아예 점수가 확 높으면 거의 다 붙습니다.

지금 을지대 최초컷이 몇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이면 아마 거의 붙으실꺼예요.

면접이 좀 많이 크쵸. 적성 한문제. 인성 한문제. 인성 한문제는 문과교차지원한 친구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됨.

을지의대에 딸린 병원 규모:

->1000병상 넘는 대전 을지병원있고

노원구인가에 2차병원인 서울 을지병원 있고..
강남에는 족부센터(?) 뭐 그런거 있어요.
(자세히 검색해서 면접시 교수님이 을지대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 동기 물으면 다양한 수련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좋을듯)

을지의에 기출(글 게시 일자 2009년 11월- 즉 과거부터 09학번까지의 기출문제)

- 이슬람과 서양의 갈등 원인과 해결책을 말해 보라.
 - 담배의 해로움을 예를 들어 말해 보라.
 - 9.11 사건을 문명 충돌을 피할수 있는지 없는지 말해 보라.
 -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중 걸릴 수 있는 질병을 나열해 말해 보라.
 - 담배의 해악성에 대해 말해 보라.
 - 종교 간의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지 말해 보라.
 - 9.11 테러에 관련된 것들을 말해 보라.
 - 사형 제도의 찬반 여부를 말해 보라.
 - 인간게놈프로젝트에 관해 말해 보라.
 - 유전자의 정의에 대해 말해 보라
 - 무성 생식의 방법에 대해 말해 보라.
 - 줄기 세포란 무엇인지 말해 보라
 -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 명단 공개는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말해 보라.
 - 의사가 된다면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말해 보라.
 -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라.
 - 대학생 학력 저하 문제의 대책을 말해 보라
 -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교육 정책을 펼 것인지 말해 보라.
 - '클론'의 개념과 예를 말해 보라.
 - 인간 복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라.
 - 원조교제 처벌 방침 중 '명단공개'와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라.
 - 9.11 테러 이후 문명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지, 문명 간 충돌을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말해 보라.
 -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라.
해수면 부근의 고다가 낮은 곳에 살다가 갑자기 2,500 - 3,000m 이상의 높은 곳에 오르면,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현기증, 두통, 구토, 쇠약 등의 증상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함은 1~2주 후면 그 증상이 사라진다.
-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1~2주 후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황량한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생명체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드물지만 그 황량한 사막에서도 포플러나무나 키 큰 관목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표면 밑에 있는 물 때문이다. 물은 지구 표면의 3/4을 덮고 있음, 모든 생물체의 50~80%를 구성하고 있다. 물이 지닌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생물체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물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왜 물이 반드시 필요한지 설명하시오.

○ 현재 우리사회는 “N-세대”(NETWORK세대)에서 “M-세대”로 이동해 가고 있다고 한다. 이후 P세대, U세대 등 많은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여러 신조어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여기서 “M-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IT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볼 때 “M-세대”이후는 어떤 세대가 나타나겠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 최근 우리나라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기존의 역사기록과는 다른내용을 전달하는 사극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극 드라마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만 제시한다면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시오.

댓글 : 그런데 3문제가 있으면 3문제를 다 알아야 하는게 아니라 그중 가장 자신있는 한문제를 골라 멋지게 말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일 가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예요 ㅎㅎ 무엇보다 상대평가 아닙니까.ㅋㅋㅋ

제 경험상으로는 면접에서 적성문제도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성적인 부분도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고 싶은 의지와 교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는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ㅎㅎ

대답 댓글자 잘하는것보다.. ○○열정을 보여야함.

기출이긴 한데 사막에서 흰색옷보다 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게 유리 한지..

처음으로 오르비에 올리는 글
을지대보구왔는데
너무추웠다는생각뿐
오전반이 웬지 문제가 더 쉬웠던 뽀
그래서 다행ㅠㅠ
전 C조였는데 교수님들도 갠찬으셨구
문제들도 갠춘

적성
1.적아세포증 설명 : 신생아 용혈증(적아세포증) 기작 설명
2.오바마 의료보험 개혁안에대한 견해
3.항생제에대한거: 항생제가 세포 죽이는 기작 설명.

인성
1.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여부가 우리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필요하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수출을 늘리려는 한국에게 농산물의 수입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미국은 맞섰다.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 하세요.
2.청소년 자살수가 급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또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나?
3.고령자 최저임금 삭감에대한 견해

전 적성2번이랑 인성3번했어염~
마지막에 교수님이 다른학생들의 답안이나 모범답안이랑 상이하다구했는뎃 좋은건지 나쁜건지,,
거의끝조여서 3시간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었다능ㅠㅠ

오후반이었고

적성 D 인성 B였나..반대였나..그랬구요

적성문제는
1.석면으로 인해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 1.석면이 무엇인가 2.(기억안남) 3.병의 종류와 특징?

1번문제만 보고 패스해서 2,3번은 모르겠네요-_-

2.갑돌이는 회사 A와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회사 A는 평균연봉 5000 B는 평균연봉 7000이라 B를 선택했다

판단에서 잘못된점은?

3.프랑스의 누군가는 조용히 집에서 죽었다

소문에 의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굴뚝을 막아놔서 그랬단다. 소문이 사실이라고 할때 죽은 원인과 그 기저를 설명하시오

인성문제는
1.사회단체가 대북에 뼈라를 퍼뜨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니 생각은?

2.개인이 기부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은 세금만 내고 공공의 증진은 정부가 해야한다는 말이있다.

1.정부의 역할은 공공 후생의 증진을 위한다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 2.기부문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3.TV 사극에서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영할때 그것에 대해 표기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대한 니 생각은?

요렇게 세문제중 하나 선택해서 30분동안 A4용지에 대충 정리 한 다음에, A4용지는 회수하고 그냥 면접실로 가서 1:3 면접봤어요

전 둘다 2번 택했는데

적성 2번은..평균의 함정, 이라면서 고위직원들이 높고 평사원이 낮은 경우 평균은 높지만 갑돌이가 기대할 수 있는 급여는 적을 수 있다. 이런 논지로 말했구요

인성 2번은..(1)정부는 고대시대에 마을 촌장이 마을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정치를 한것이 그 시초다. 따라서 현대에도 정부는 공공 후생의 증진을 꾀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책화 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은데,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처럼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동의 할 수 없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그런 고로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맡기는게 좋을 것 같다..

(2)기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부의 재분배의 효과를 볼 수 있따..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서는 물질적인 자산으로 비물질적인 자산, 즉 명예나..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보람 이런것을 얻을수 있다.

이런식으로 설명했어요.

한문제에 2분씩이라 저렇게 대충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였는데..첫번째 교수님은 그냥 개인적인 얘기 물어보셨고;

두번째 교수님은 기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기부할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셔서

처음엔 좀 뻘소리 하다가-_-; 그 다음에 한번 더 지적하셔서 1.이미지 관리 2.물질적 자산을 투자하면 그런 만큼 정치적 입김도 작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생각엔 그냥저냥 평타는 친거 같은데..나중에 나가면서 교수님들끼리 '점수를 더 주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 하셔서-_-; 아 진짜 망했구나..싶었네요

면접으로 뒤집어야 하는데..ㅜㅜ

오전반... 들어갔더니 바로 자기소개 하라셔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말했음;;ㅋㅋ

인성 2번 우리나라 자살율과 경제적 원인 뭐 그런거였던듯;; 그냥 말 열심히 하다 스웨덴 복지모델 미국 복지모델 우리나라 복지..사례들면서 복지와 자살율 비례관계 그런거 말하고 _-;;

적성 2번 혈압.. 요거 그냥 별 반응 없었음 끄덕끄덕

끝나고 가운데 교수님이 학교 들어오면 예과때도 열심히 할거냐 물어보심 ㅋㅋ 물론 대답은 뻔한대답

D들어갔었구요 좀 늦게해서 기다리느라 죽을뻔함 ㄷㄷ